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4 회 , 성령, 2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성령, 2부입니다.

우리는 요한 신학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인지 보았습니다. 사실,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모두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말했기 때문에 다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했으니, 132절, 요한이 증거하였으니,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음을 보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종 구절 중 일부에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겠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세례 때 성령을 받아서, 글썄요, 신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가 기적을 행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령으로 그의 인간성을 강조하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때때로 신성을 강조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메시아는 세례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에 성령을 주었을 것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 메시아는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두 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당신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권능, 즉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예언을 회상하시고, 그분 자신이 예언하시고, 2장에서 그분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므로써 요엘의 예언을 동일한 예언과 연결시키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폭발하고, 3년 반 동안의 그의 공적 사역 전체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공개적으로 시작됩니다.

오, 예수의 부활이 그 기초이지만, 여기서, 불, 다시, 새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신약 백성이, 불, 오순절에 강력하게 태어났다. 성령을 받은 메시아가 성령을 줄 수 있도록 정확히 그렇게 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한 후에, 그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었다.

요한복음 7:37-39, 오순절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쓴 작은 책인 요한복음을 알아가기, 주요 사상을 새롭게 살펴보기, 116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날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권하십니다. 7:37.

이 명절의 관습을 더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의 첫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물을 붓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행렬을 이끄는 제사장이 눈먼 사람이 눈을 씻었던 실로암 못에서 금 주전자로 물을 길어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 합창단이 시편 113~118편, 할렐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제단 서쪽에 있는 깔때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사실, 이 의식 전체는 전년에 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을 위해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의 여덟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 물을 붓는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활용하셨습니다.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고 말씀하시는 분께로 향할 것입니다 .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요 7:37-38).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

더욱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 영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교회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의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얻으셔야만 교회에 새로운 충만함과 권능으로 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관례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7장 :40-44.

ESV에서 읽어 볼게요. 1989년에는 ESV가 없었던 것 같아요. 7:37.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큰 물보라를 일으키고 체포됩니다.

그들이 그 부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의 친형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그의 친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맙소사, 맙소사.

그는 비밀리에 올라갔고, 그는 이 사역을 명절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추구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거, 이제 이거 그가 영에 대해
말했어. 미안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영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심각한 해석이 필요해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읽고
싶습니다.

7:39, 7:39.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행전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 맞아요, 더 낫죠.

그 사도행전은 내가 가끔 당신에게 말해야 할 어려운 그리스어입니다.
특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요. 그리고 그는 영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영에 대해서요.

그를 믿는 자들은 받을 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39. 아직 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 이후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팀 중 일부처럼요.

아직 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직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오, 실례합니다. 아직 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다고 쓰여있네요.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영이 주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이야. 좋아, 그거 좋다.

분명, 영은 이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분명, 영은 이보다 먼저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오순절에 주어진 방식대로 오순절 전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창세기 주석 중 일부가 맞다면, 성령은 창세기 1:3에서 활동했고,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유대인 해석가들이 때때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구약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의 사역 없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따라서 구약 성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에 의해 내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저는 그 영, 그 영이 그 일들을 했다고 믿지만, 그 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에게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구원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였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원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을 때의 성육신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였지만, 우리는 영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오순절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새롭고 능력 있게 오셨을 때 교회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에 따르면 메시아의 미완의 일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세례자 요한에게 예언한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을 위해,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예언을 되뇌시고, 자신의 예언을 더하시고, 누가복음, 사도 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에서 승천하십니다. 불, 소리, 빛의 쇼.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새로 나타나 예수 위에 머물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리, 돌진하는 바람, 불길을 주셨습니다. 저는 자동차 유통업체, 사도들의 점화 플러그를 생각합니다.

그는 성령이 놀라운 새로움과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소리쳐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1:8, 그 앞에 있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들은 그것이 이방인 도 교회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성서는 그것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한의 소위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 유명한 것은 19장과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고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ETS에서 오순절 신학자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맥도날드가 마지막 이름일 겁니다. 그는 당시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유능한 학자이자 복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오순절과는 별개의 특별하고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음주의 학자들의 위대한 합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19. 그날 저녁, 주의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이 잠겨 있을 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생소하지 않은 인사지만, 부활하신 스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가? 요한 복음에서 여러 번. 이제 그는 1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그는 그들을 그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보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담의 코로 숨을 쉬는 것, 창세기 1장에서의 생명의 호흡을 떠올리며.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호흡을 불어넣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순절을 예견하는 예언적 행동과 예언적 말씀이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요한의 대명령이라고 불립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보류한다면, 그것은 보류됩니다. 아마도, 그들을 보내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반영하는 말씀과 함께 보내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일할 때, 사람들이 일어날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죄가 용서되거나 유지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주실 때, 우리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오순절을 빼놓지 마세요. 오, 맞아요.

만약 내가 하나의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그의 죽음일 것이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가 되고, 그것들이 결합되어 필수적이며, 둘 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그것들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저 허황된 것이다.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사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고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역에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의 성육신, 그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그의 죄 없는 삶,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됩니다. 부활 후, 그의 구원의 사역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전에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영을 부어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가?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의 일을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세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주는 사도들의 메시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기 위해 영을 부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구속적 역사적 사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영을 주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새 것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확장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표징의 책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같은 표징의 책에서, 우리는 그가 2021년부터 23년까지의 영광의 책 또는 승영의 책의 마지막에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의 책에 있는 작별 담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4:16, 17:15. 그렇습니다, 14:15.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십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에 걸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는 또 다른 번역하기 어려운 파라클레토스를 주실 것입니다 .

번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보혜사,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1.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중보자.

변호사를 뜻합니다. Paracletos는 그곳에서 변호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검찰 변호사입니다. 영은 세상을 죄, 의, 심판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도와주러 오는 사람,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알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맥락에 따라 일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영의 일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영이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입니다 . 그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 영을 부어주시는 지금, 이것은 물론 예측입니다. 영이 행합니다. 영이 행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영의 인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영과 동일시하는 듯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아들과 영의 뚜렷한 인격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라. 14:6. 일곱 가지 IM 말씀, 세 가지 의미만, 14:6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가 진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썄요, 하나님의 계시자는 아버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영을 보냅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영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 계시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으로 경험주의적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영입니다. 당신은 그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과 함께 거하고 당신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영을 보내십니다.

문맥상 이 말씀은 아버지가 보낸 자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요한복음 20:21-23에서 보았듯이, 위대한 제사장 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내가 영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며, 성경을 계시하기 위해 보내진 자입니다.

이 말씀들은 신약의 사전 인증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적 설교의 사전 인증입니다. 그 힘겹고, 어리둥절하고,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세 걸음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니 ? 오순절. 오, 세상에.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거하고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영이 그들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현실이든 아니든,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과 영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삶과 별개로 구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에서만 좀 명확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의 주요 성취는 가르침의 명확성입니다.

요한복음 14:25, 26.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보혜사 곧 성령이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영을 보내시는 분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보내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돕는 자, 성령, 평화.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남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너희 마음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떠날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름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합니다. 악마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삼위일체적 인격은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순수하신 것처럼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교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계시자였습니다.

그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과 경건함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쯤에서,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도들의 예수에 대한 메시지와, 암시적으로 15장, 26장, 27장에 있는 예수에 대한 기록에서 영이 활동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15, 25, 26절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면, 다시 보혜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들과 영을 합칩니다. 오, 정말 말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영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면, 그는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는 주요 증거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에 있었던 시련을 요약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유머러스하게도, 그는 가야바의 입을 막고, "전에 말씀하신 가야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 웃기죠. 시련은 최소화되었지만, 레이먼드 브라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예수는 평생 시련을 겪습니다.

코스텐버거는 그것을 예수의 우주적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과 증거의 주제는 5장에서 예수가 “세례자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 나의 아버지, 나를 증거한다, 나의 표적, 나의 기적, 나를 증거한다, 구약성경이 8장에서 나를 증거한다”고 말한 데에 들어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거한다면, 당신의 증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글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만, 나는 결코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모두 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장에서, 우리는 두 명의 증인을 더 추가했습니다. 영과 제자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면 그는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할 것이다. 그들이 사도행전 1장을 마지막에 임명했을 때 유다를 대신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살아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신격 안에서의 영원한 행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독생자가 영원한 낳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요한 복음에서 오해되었습니다.

교부들은 그들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은 신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어, 그들은 항상 신이었고, 그들은 모두 원인이 없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저는 여기서 이 주제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의 영원한 숨결에 대한 증거 텍스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고, 증인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아버지, 아들, 영이 일합니다. 세례자 요한, 구약성서.

다른 사람들의 범주를 알려주세요. 증인이 일곱 명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셨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7과 존스를 좋아해요. 존스라는 녀석이 저에게 7을 좋아하도록 가르쳐줬어요.

어, 16은 어때요? 7에서 11까지요? 너무 많은 해석이 있어서 어렵네요. 저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세부 사항에서 다 카슨을 따르고 있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그렇죠. 오,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6장의 일곱은 어렵거든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플라톤의 도우미 바라크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면 그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영은 여기서 검사로서 일할 것이다.

요한 1서 2장,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운 분은 우리의 대변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

그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느님, 그 사람의 죄를 보세요. 그녀의 죄를 보세요.

당신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은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흔을 보여주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를 주었다. 너는 그녀를 만질 수 없어. 그녀는 여기 내 것이다.

무슨 뜻이야? 그는 세상을 정죄할 거야. 그 영은 검찰 변호사로서 세상을 정죄할 거야. 일반적으로,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는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할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잔치에 올라가십시오. 마술사여, 마술을 좀 보여 주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오, 그는 자기 집에 그걸 가지고 있었어. 적어도 그는 가장 나이 많은 형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의 친형이 아니야. 조셉은 그들의 제작에는 관여했지만 감옥에는 없었거든.

하지만 그래도, 오 세상에. 그의 친형조차도 그를 믿지 말았어야지. 요한복음 7:5.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와. 그는 당신이 세상에 속한다고 암시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해줄게요, 요한, 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후, 예수는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와. 포옹, 울음, 심지어는 뺨에 대한 근동식 키스도 있었을 거라고 내기하고 싶어요. 와.

상상할 수 있나요? 와. 아마 고백도 좀 했을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어쨌든 예수는 세상의 승리자였습니다 . 일곱, 요한복음 일곱, 요한복음 일곱 장. 그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 아니. 오, 영이 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죄, 의, 심판의 세상을 섞을 수 있습니다.

DA 카슨은 한 기사에서 신약성서 연구에서, 누가가 말했듯이,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정기 간행물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통성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Kostenberger는 그들 모두가 정통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거친 것도 있지만, 여기 Carson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우리가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 그리고 첫 번째는 그가 죄에 관해 세상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인과관계는 우리가 해석해야 하지만, 카슨은 정의와 판단으로 시도해 보자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를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의를 행하는 자이며,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됩니다. 세상은 심판을 행하는 자이며, 그것은 영적 현실의 거짓 심판이 됩니다.

효과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저는 의견이 다른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

나는 그것을 신앙의 조항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입하거나 성직을 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봅시다.

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인간이며 죄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믿지 않고 그들만의 것으로 남겨집니다.

그들은 8장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가는 것은 제자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영, 그의 분신을 보내어 그의 사역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루터가 좋은 소식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 그는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 독선은 존에게는 그런 식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슨은 그가 틀렸다면 나도 틀렸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나는 좋은 회사에 있어. 어쨌든,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그건 확실해 .

아버지 께로 가기 때문에 ,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영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신 분. 나는 다음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의 풍선을 계속해서 찢러대는 자는 더 이상 주변에 없습니다 . 그 영이 그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지닌 죄인들에게 자기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에 대해, 영적 현실에 대한 그들의 거짓된 평가에 대해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빛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빛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3장.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들의 거짓 판단에 관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하느님이 승리자이지만, 사람들이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합니다.

영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는 값진 진주가 되거나, 사람이 모든 것을 바치는 발에 숨겨진 보물이 됩니다. 갑자기, 나는 두 발 달린 당나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 성령께서 그들에게 죄와 의로움과 심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15 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느니라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그 표현을 몇 번이나 들었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리라 사도들은 자기들의 것을 전파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것을 쓰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권위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듣는 것은 다 말하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니 곧 종말이로다.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영의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역에 대한 영의 역할이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TV에서 보고, 나는 그것들을 참을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을 끈다. 그것들은 인간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는 내 것을 가져가서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영은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내 것을 취하여 너희에게 선포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것을 선포하셨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을 선포할 것이다. 삼위일체의 조화가 곳곳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게도요. 그 전에, 첫 번째 표징의 책에서, 코스텐베르거가 말했듯이, 그것은 공관복음서에서와 같이 영에 대한 보행자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별 담화에서, 뵘! 영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까지 주어졌습니다.

가르침은 그 운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전에 주어진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관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바울의 바울주의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령에 대한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요한의 교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성령, 2부입니다.